

< 탄자니아를 위한 기도제목 >

1. 현지인에게 이양된 미션(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Africa - Tanzania Grace Church)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2. 카란시 나사렛교회, 남와이 은혜교회, 김부시 교회가 목사와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3. 리아몽고 지역에 유치원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4. 후원하게 될 신학생들(프레디, 네에마)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5. 여이주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서(간경변-강경화)

- 탄자니아에서 여이주, 최희정 선교사 드림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 CT 촬영 결과 아무 장기에도 전이가 되지 않았고 암세포는 2mm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처럼 수술, 항암치료 받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9월에 다시 CT촬영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최치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암에서 많이 치유되었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 암이 림프로 전이 되었고 항암치료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이 줄어들고 치유함 받도록.
5. 강명철 선교사 - 우울증이 좋아져서 약을 끊게 하시옵소서
6. 이지향선교사 - 척추 협착증 족저근막염 기도 덕분에 통증 없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베트남 이원재 선교사 - 장창선 선교사 위암1기와 자궁근종을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 하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전이되지 않아서 함암치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 박성직 선교사 - 모든 분들의 기도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9. 네팔 이승배 선교사 - 이승배 선교사님께서 전립선 암 재발로 인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선교사 - 남영미 선교님께서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완전 절제 후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고산지대와 열대 지역 온도로 인하여 체온 조절이 힘들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약으로 제어가 힘든 상황입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러시아 최성목 선교사 - 중풍으로 인해 오른쪽 뒷목이 당기고 아파서 오른 팔을 사용하지 못하며 혼자 일어나거나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태임 - 통증이 사라지고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40년동안 은혜교회와 복음사명 위해 수고하신 김광신 목사님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IN LOVING MEMORY OF

Pastor David

(1935.1.2 ~ 2022.5.25)

사랑하는 김광신 원로목사님,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세요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2년 5월 29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살롱! 우크라이나 소식 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될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엡5:15-17)

안녕하세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가 버리네요. 그 동안은 약 삼개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내 가 있을 곳이 아닌 이곳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거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 수고하고 있는 김교역 선교사와 통화를 마치고 하루종일 이곳 저곳으로 사역을 위해서 달리고 달려서 필요한 곳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시고 가까이에서 보호하시고 계심을 피부로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손 안에서 두려워 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베풀고 쓰기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주님, 그동안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훈련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오병이여를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저절로 남들 모르는 감동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들려오는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들 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 와중에도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는 계속 일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자빠로자 도시에 있는 저희 지교회 부교역자인, 슬라빅 사역자가 아이가 셋 있는 젊은이 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아이가 하나, 둘 있는 가정은 전쟁터로 불려도 아이가 셋 이상이면 가정을 돌보게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집을 떠나서 잠깐인줄로 생각하고 임시로 폴란드 국경을 넘어갔지만, 원치않는 피난민들이 되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이 갈급해 하는 우리 교단 교회 성도들이 저희 젊은 사역자에게 상담이 오고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김교역 선교사에게 연락이 닿아서 기도하면서 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폴란드로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척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금도 보냈다고 합니다.

피난 간 분들 중에는, 지금은 다시 되돌아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각 나라들로 흩어져서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더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서유럽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 드립니다. 72년전에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주셨던 주님, 우리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시고 우크라이나 민족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서유럽에도 주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으로 유럽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 오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안에서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우크라이나 김교역, 김주순 선교사

광 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 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714-446-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3월23일 LA.에서 밤 비행기로 출발하여 런던 경유, 25일 새벽에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Entry permit과 공항에서 다시 코로나 검사비를 모두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에, 2년여만에 이스라엘 땅을 밟은 저는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난민처럼, 내가 이 땅을 다시 밟았다는 벅찬 기쁨으로, 일년 전에 남의 손을 빌려 zoom으로 정리했던 아파트는 사역에 관한 모든 기구들과 살림들을 정리했지만, 잔무 처리가 있어서, 일단 이스라엘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스라엘 방문은, 그동안 씨뿌렸던 사역과 유대인 청년들과의 만남,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갈릴리, 나사렛, 골란 고원, 사해와 에일랏(홍해)등 언제 올지 모르기에 그런 일로 두루두루 일정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리를 하러 갔다고 할 수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아직 있으신지, 생각지도 못한 사역의 길이 열리고, 정부 기관의 고위층과의 만남과 새로운 프로젝트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기관중에는 외국에 흩어져있는 유대인들을 본토로 데리고 오는 “알리아 에이젠시”가 있는데, 직속 상관은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관이며, 고집스런 전통 유대인들과 랍비들과도 잘 협력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11대 대통령인 “이츠하크 레초그”가 대통령 취임전까지 알리아 에이젠시 총회장으로 있었던 기관입니다. 그 알리아 에이젠시 실무 담당자와 만날 수 있었고, 또 저희 교회와 Ahavat Elohim 단체의 리더의 “노아 방주”를 네델란드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하이파 항국에서 “출항 세리머니”할 계획을 들던 그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전에 추진했다가 못했던 “한국문화행사”도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많아진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전세계가 한국 신드롬에 빠진 것 같은 일여, 우리들의 상상을 넘어 놀랍게 번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서, 한국 사람을 보면 기뻐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한국 문화가 밀접하게 다가와서 외국 마켓에서도 한국 라면이 종류대로 있으며, 예루살렘에 한 한인교회는 매주 화요일 1-7시까지 “라면 데이”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라면 하우스에 와서 라면을 맛있게 골라 먹으며, 한국인들과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았고, 또 실제로 그 한인교회는 유대인 성도가 현재 5-6명 된다고 합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성지 순례객이 끊어지고, 모든 도시가 마치 고스트 타운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시장이 TV에 나와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 “그동안 우리는 성지순례오는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물랐었다. 그러나 이 땅을 찾아오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보물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한 후에, 히브리대가 있는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 감람산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고, 하이파와 중요 도시 7개 시에 성탄절 트리를 세워, 어떤 한인 선교사 부부는 크리스마스 트리투어를 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숨결이 있는 곳으로 닥아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으셨는지요? 텔아비브에 예수믿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cafe가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기독교를 혐오하는 단체가 cafe에 와서 욕을 하며, 방해를 하면서 사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는데, 그 cafe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텔아비브에선 정말 오랫동안 테러가 일어나 2명이 죽고, 10여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 충격소리에 놀란 시민들이 도망가느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 cafe 주인이 시민들을 그곳으로 피신시키는데, 복음 카페를 방해하며 욕을 하던 주동자들이 놀랍게 시민들에게 “저 cafe로 들어가라, 저리 들어가면 살 수 있다”를 외치며, 시민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며 본인도 그 안으로 피신했다고 해요. 이 뉴스는 방송에도 나왔었습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사역을 정리하러 들어갔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사역을 맡기시려는 것 같아 기쁘이므로 주님께서 명하신 곳이 어디든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열정이 생겼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는 이스라엘 회복과 유대인들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져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자되심을 믿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롱!

살롱! 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졸업)

오는 5월 27일 5기 졸업식이 있습니다. 3년을 기다리며 하게 되는 졸업식이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명의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동역자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한 학생들이 생명을 전하는 용사로, 성령충만하여 주님의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셔서, 영상으로 강의를 보내 주신 교수님들께, 또 미국에서 직접 인도까지 찾아와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들의 헌신에 저희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 건강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리유니온)

5월 25, 26일 이틀동안 졸업생 리유니온이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과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와 박해들로 위축되었던 졸업생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고, 말씀을 들으며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그들의 오고 가는 길들을 지켜주시고, 모임 속에 성령충만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황신 목사님의 성령충만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7 GIGL)

내년 2023년 2월에 7기 GIGL 집회가 있습니다. 인도인들에게 GIGL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집회입니다. 이를 위한 모든 준비들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한 인도의 영혼들이 위로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신학교 학생들)

내년 2월에 시작될 ㅈ학교 6기 학생들 모집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보내 주시고, 그들이 잘 훈련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

오는 9월 10월에 각 주마다 흩어져있는 졸업생들의 교회에서 인카운터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들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새롭게 주님을 믿고 또 세워지는 놀라운 기쁨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을 방문)

11월에는 미국에서 팀이 옵니다. 이 마을 방문에 전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분들을 보호해 주시며,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강선교사님 건강)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강선교사님의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을 끊고도 괜찮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하심과 성령충만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도 강OO & OOO 선교사 올림

